

긴급사태 선언 연장에 따른 외출 자제 등과 관련한 부탁 말씀 ~ 현민 · 사업자 여러분께 ~

오늘부로 긴급사태 선언이 5월 31일까지 연장됐습니다. 우리 현은 지금도 특정 경계 광역자치체(特定警戒都道府県)로 지정돼 있으며, 코로나 19 확진자 발생을 줄이기 위해 외출 자제 등의 행동 지침을 계속해서 준수해야 합니다.

현민 여러분과 사업자 여러분께서 이미 많은 협조를 해 주고 계십니다. 긴급사태 선언이 5월 31일까지 연장됨에 따라 ‘대면 접촉 80% 감소’를 위해 다음과 같이 지속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현민 여러분께 드리는 부탁 말씀

(1) 외출 자제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불필요한 외출은 자제해 주십시오.

(2) 효고현 이외의 지역 이동 자제

도쿄와 오사카 등의 인구 밀집 지역, 효고현 이외 다른 지역으로의 이동을 자제해 주십시오.

(3) 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밀폐 공간, 밀집 장소, 밀접 현장’ 피하기

운동 등 건강 관리를 위해 공원에 가실 경우에는 혼잡한 시간대를 피하시고, 타인과의 거리 두기를 부탁드립니다.

(4) 슈퍼마켓, 상점가 등에서도 ‘밀폐 공간, 밀집 장소, 밀접 현장’ 피하기

슈퍼마켓, 상점가 등에서도 혼잡한 시간대를 피하시고, 가족을 동반하는 등의 이용은 자제해 주십시오.

2 사업자 여러분께 드리는 부탁 말씀

(1) 휴업 (시설 사용 정지 등)

유흥 및 오락 시설, 공연장, 영화관 등의 휴업 요청 대상 시설은 계속해서 휴업에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2) 출퇴근 노동자 수 줄이기

대면 접촉을 줄이기 위해 재택 근무나 화상회의 등을 실시하여 ‘출퇴근 노동자 수 70% 줄이기’를 목표로 지속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3) 슈퍼마켓, 상점가 등에서의 감염 예방

슈퍼마켓, 상점가 등의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감염 확산 예방을 위해, 혼잡시의 입장 손님 제한, 계산 대기 선 설정 및 계산대 가림막 설치 등 사람 간의 거리 두기를 위한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현민 여러분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여러분들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